

모노레일 이용자 시점의 경관잠재력 및 경관관리방향 모색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대상으로-

윤재백* · 정태열***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 형식으로 건설되어, 2015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보행자 및 차량 시점보다 약 13m이상 높은 지점에서 최대 70km/hr의 속도로 대구광역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대중교통의 개설로 새로운 시점의 도심경관이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노출되게 되었다.

모노레일은 도심경관을 관찰하기 용이한 높이에서 운영되어, 모노레일 인접지역을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면 대구광역시의 주요 경관자원의 하나로 거듭하게 되며, 더 나아가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금회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운영 시 노선주변 경관특성을 모노레일 이용자 시점에서 조사 후 구간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경관잠재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대구광역시에는 2015년 2월 기준으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기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은 전 구간 모노레일 형태로 건설되어 유·무형의 다양한 경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인 칠곡 경대병원역 ~ 용지역 (30개역) 이상 23.95km 구간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조사 방법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노레일 시험운행 시 비디오 카메라 3대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 우측면 - 좌측면 3방향을 동시에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은 지도교수 외 7인의 조경학과 재학생들이 분석 후 약 13주간 매주 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도출하였다.

3. 연구 방법

도시는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복합체로 단편적인 경관 분석을 통해서는 이용자 시점의 도시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 이미지 5요소(Paths, Edges, Districts, Nodes, Land marks)'에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녹지(Green)'를 추가하여, '도시철도 3호선 이용자 시점의 이미지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모노레일 이용자 시점의 경관분석범위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지면과 인접한 시점의 기존 도시경관은 건축물로 인해 대부분 가시권이 좁았으나, 지상 13m지점을 이동하는 모노레일은 차폐인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가시권역이 넓다. 다만, 원경은 배후경관으로 명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을 중심으로 근경(400m이내) 및 중경(400~800m)에 해당하는 반경 8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도시철도 3호선 이용자 시점 이미지맵(Image Map)

대구 도시철도3호선 이용자 시점의 주변 경관 이미지를 '도시 이미지 6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은 도시이미지 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도시 이미지 6요소'로 도식화한 이미지맵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도시 이미지 6요소 추출결과

구 분	도시 이미지 요소
통로 Path	동암로, 칠곡중앙대로, 매천로, 경부고속도로, 신천대로, 서대구로, 노원로, 달서로, 오봉로, 원대로, 옥산로, 달서천로, 칠성남로,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 명덕로, 현충로, 중앙대로, 신천동로, 들안로, 동대구로, 청수로, 무학로, 법학로, 경부선철도
연변 Edge	경부고속도로(금호강), 신천대로(금호강, 신천), 신천동로(신천)
지역, 지구 District	팔계평야, 고물상 밀집지역, 매천농수산물시장, 공업단지, 팔달시장, 오토바이골목, 공구골목, 서문로 타올거리, 서문시장, 자동차 부속골목, 범어과학교육지구, 수성유원지, 지산 법률 밀집생활지구
결절점 Nodes	매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경부고속도로-팔달교 교차점, 만평네거리, 원대오거리, 고성네거리, 큰장네거리, 신남네거리, 계명네거리, 명덕네거리,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교차점, 수성시장네거리, 명덕로-동대구로 교차점, 어린이회관삼거리, 황금네거리, 두산 오거리, 범물네거리

랜드마크 Landmark	하중도, 대구제일교회, 83타워, 수성못 벽천
녹지 Green	강변공원, 공공공지 근린공원, 침산공원, 달성공원과 입구의 가로수, 제일교회 주변 녹지, 달성공원 역에서 이어지는 정면의 가로수,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주변 산림, 남산역까지 이어지는 가로수, 범어공원, 동대구로 가로수, 수성유원지, 지산근린공원, 범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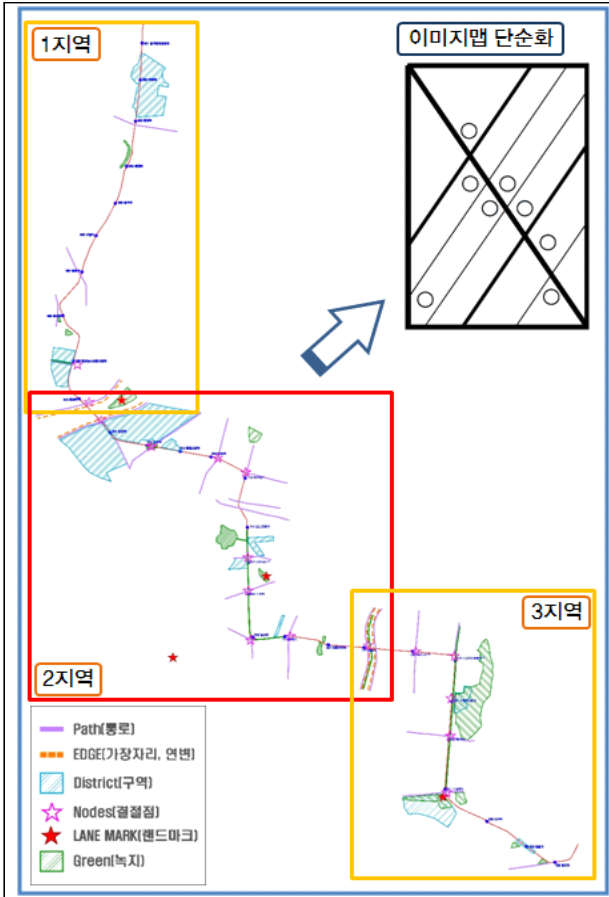


그림 1.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이용자 시점경관 이미지맵 작성결과

2.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지역별 경관잠재력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본질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노선 선정 시 주요 인구밀집지역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상 13m 지점의 이용자 시점 경관분석결과 모노레일 선로 변 주요 경관요소 및 도심경관변화를 부감으로 관찰하기 용이하여 다양한 도시 이미지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미지맵을 작성하였다. 이미지맵 작성결과, 금호강과 신천을 경계로 크게 3지역으로 구분 되었으며, 각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도심변환 과정에 따라 경관잠재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지역별 경관 잠재력

구분	경관 잠재력
1지역	철곡지구 신시가지로 배후 주거지의 성격 가지고 있음

(금호강 북측)	으며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 고층아파트경관과 자연경관(평야와 배후임야, 하천 등)이 공존함.
2지역 (금호강 남측 ~신천 서측)	구도심으로 주요 공업, 상업구역이 위치하며, 통로(Path), 구역(District) 등이 집중됨. 오랜시간 성장한 구도심으로 노후와 재생이 공존하고 있음.
3지역 (신천 서남측)	수성구 신시가지로 주거지역과 교육, 휴양을 위한 구역(District)이 위치함.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수요에 따른 변화잠재력 큼.

경관잠재력 도출결과, 모노레일 이용자 시점은 기존 도심경관 정비범위를 벗어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경관취약지점도 여과없이 노출되는 등 보완해야 할 지점이 다수 나타났다. 이들 지점을 지역특성 및 경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비한다면, 도시이미지 쇄신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도시의 특성상 랜드마크적 요소는 부족하며, 도시 개발 및 구도심 재생 시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이 반복되는 경관을 가진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모노레일 이용자 시점 경관을 분석한 결과, 도심경관을 부감으로 관찰하기 용이하고, 노선을 따라 시점이 이동하는 특성상 다양한 경관자원이 순차적으로 지나가게 되어, 보다 복합적인 관리방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경관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는 각 지역 특성의 결합체로, 경관관리방향 설정시 통일성을 기하기보다는 구간별 경관잠재력 및 특성을 반영한다면, 긍정적인 경관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도시이미지 중 중요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경관요소는 모노레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변 지역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용자 시점 경관은 모노레일의 이동속도 및 선로높이 변화, 선로방향전환 등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점 변화 요소가 나타나는 구간 정비의 경우는 이들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녹지(가로수, 공원)의 경우 도심 속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녹지축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다른 녹지와 연결을 꾀한다면, 보다 자연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모노레일 이용자 시점의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Kevin Lynch(1960) / Image of the City
- 이종욱(2003) / Kevin Lynch의 이론을 통한 한국도시 공공성확보 연구